



최유정 중학교 1학년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날씨 맑음

이상기후의 역습... 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



원액값 1년새 2배 폭등
브라질 기온상승·질병 여파
작황 악화에 생산량 급감
만다린-귤 등 대체과일 혼합
제조업체들 대폭 마련 분주

오렌지 가격이 1년새 두 배로 뛰면서 주스 가격도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다. 다급해진 제조업체들은 만다린, 귤 등 대체과일을 혼합한 주스를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오렌지 공급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격을 끌어 올렸다. 올해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량은 2억 3000만 박스로, 전년보다 4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기후로 품질 역시 저하될 것으로 예측

내달란드 리보뱅크의 앤드리아스 파피달 분석가는 "공급량이 줄었는데 브라질 농장 중 관계 시설을 갖춘 곳은 3분의 1 미만"이라고 말했다. 또 남동부 주요 재배 지역에선 과수원의 약 40%가 감귤 녹화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위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주요 재배 지역인 플로리다에서 2022년 말부터 허리케인과 한파가 지속 발생하며 상당수 과수원이 폐쇄되었다. 미국 오렌지 공급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플로리다의 생산량은 현재 1700만 박스 수준에 그친다. 미국에서 감귤 녹화병이 발견되기 이전인 20년 전 2억 4000만 박스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액 가격 상승은 오렌지 주스 소비자 가격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렌지 주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일본 오렌지 원액 주스 판매 중단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오렌지를 혼합하거나, 만다린, 귤 등 대체과일과 섞어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연과 약제로 수입비용 상승까지 감친 일본에선 오렌지 주스 원액을 쓰는 다양한 음료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감귤 주스로 오렌지 주스를 대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음료 용기 크기를 줄이는 압세도 나왔다. 영국 퓨리티소프트 드링크스의 셰라 볼드윈 최고경영자(CEO)는 "격동적이고 불확실한 요인으로 우리는 음료 가격과 크기를 재검토해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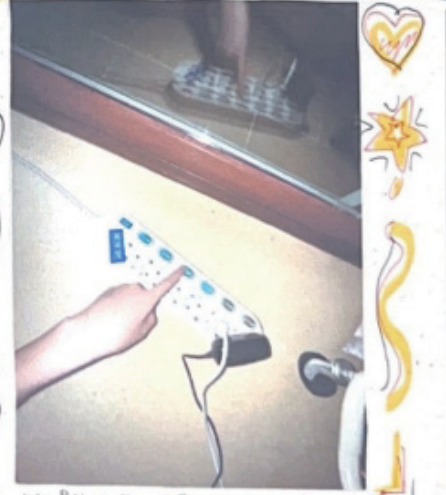
2024년 05월 30일 이데일리

신문 기사를 읽고 느끼는 것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각하고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느꼈다. 어릴 때 부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먹었던 나에게 친숙한 오렌지 주스가 1년새 2배나 폭등했다고 하니 정말 실감이 안난다. 이상기후로 인해 오렌지 주스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니, 곧 다른 각각의 과일 주스도 점차 가격이 인상될 것 같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두렵고, 실감이 안난다. 또한 미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들이 끊임이 없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실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닌 지구에 사는 전체의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나의 작은 실천!



나는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하여 항상 안쓰는 콘센트는 뽑거나 스위치를 껐다. 나의 작은 행동이 지구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지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보니 나 자신에게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초소하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날씨 맑음

환경일보 2024년 05월 03일

'도심 플로깅' 담배꽂초 100ℓ 수거

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연대는 지구의 날을 맞아 도심 속 플로깅 활동으로 100가량의 담배꽂초를 수거했으며, 담배꽂초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하수구를 막아 용수를 일으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담배꽂초 무단 투기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흡연자들이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도시속플로깅에 쓰레기는 200L 가량 수거됐고, 화단이나 골목,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특히 2000여개의 담배꽂초를 수거했다.

담배꽂초는 폭우가 오는 날 하수구를 막아 용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담배의 필터 속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흡연자들이 담배꽂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못 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는 담배꽂초 줄기 행진지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걷기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줄고 분리배출을 하여 인증샷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GCN3부위원회 위원장)는 "이제는 지구의 날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 정책은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부와 모든 기관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당해 금지!!

NO NO !!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점! ☆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담배꽂초로 인한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화단이나 골목,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200L 가량 수거 하였는데 그중 2000여개의 담배꽂초를 수거 하였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신문을 읽어보니 여러 군데의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으며 노력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아직 지구가 잘 버티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또, 내가 정말 화가 나는 데에 가장 큰 이유는 흡연자들이 담배꽂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다.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담배꽂초는 폭우가 오는 날 하수구를 막아 용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담배꽂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므로 아직 나는 흡연자들이 담배꽂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 가 없어지 면 좋 겠다 고 생 각 을 한 다.

오늘 나의 작은 실천!

친환경은행

나는 다이소에서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돈을 다이소에게 주는 친환경 배낭 가방을 샀고, 내가 정말 친환경적 배낭 가방을 샀다. 나의 조그만 실천이 지구를 영구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좋게 할 것이다. 앞으로 지구를 위해 많은 친환경을

이것은 노력할 것이!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날씨 맑음

갯벌에 박힌 '불법 칠게잡이' 파이프... 하루에만 130개 파내!!

2024년 06월 10일 **한겨레**

송도갯벌 페어구 수거 현장
 녹색연합·시민 100여명 참여
 "몰아둔 파이프 10년 넘은듯"
 영종·용유해변 등 곳곳 방치

시민들이 송도 갯벌에서 페어구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제공

8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옥련 나들목(IC) 옆 송도 갯벌, 1m가 넘는 파이프를 호미와 모종삽으로 파내던 이호정(30)씨가 팔에 박힌 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 빼며 이렇게 말했다. 갯벌에서의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대로 발이 빠졌다. 그는 갯벌에 묻혀 있는 파이프를 꺼낸 다음 파이프끼리 연결된 끈을 잘라 물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서너명이 힘을 모았다.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 위로 파이프를 힘겹게 밀어내기를 반복했다.

이날 인천녹색연합 등 활동가들을 포함한 시민 100여명은 송도 갯벌 약 300m 구간(옥련 나들목 인근)에 설치돼 있는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수거하러 모였다. 옥련 나들목 인근 송도 갯벌에는 칠게를 잡기 위한 100여개의 파이프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차도 손을 보았다. 기차가 선 곳에서만 불법 페어구 50여개가 송도 갯벌 곳곳에 박혀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갯벌 안으로 들어가 깊숙이 묻힌 파이프를 삽을 이용해 들어 올렸다. 꿈틀대는 갯지렁이와 칠게가 눈에 띄었다. 갯벌 먹이사슬 최하층에 있는 칠게는 갑각류 달랑게과에 속한 종류로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의 먹이가 된다. 특히 갯벌을 정화하는 데 역할이 커 갯벌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 멸종위기종은 인간이 직접 만든다고? **아-도대!!**

아날 갯벌에서 꺼낸 모든 파이프 한 면은 길게 흠이 뚫려 있다. 칠게가 틈 사이로 한번 빠지면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성체가 되지 않은 칠게도 밧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듯 무분별한 포획이 문제돼 파이프를 이용한 칠게잡이 방식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동업자들은 관계당국 단속을 피해 파이프를 몰고 새벽시간을 틈타 칠게를 수거한다. 그리고 마끼 등으로 kg당 3000~4000원에 유통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포획만이 아니다. 칠게 유동업자들이 파이프 대부분을 수거하지도 않고 갯벌에 방치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민들은 약 130개의 파이프를 수거했지만 여전히 파이프 30개는 갯벌에 남아 있다. 박수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이런 불법 페어구가 많이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점 !!!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환경오염 문제도 정말 심각하지만, 사람들의 양심도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다. 나쁜 유통업자들은 관계당국 단속을 피해 파이프를 몰고 새벽시간을 틈타 칠게를 수거해서 마끼 등으로 kg 당 3000~4000원에 유통해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칠게 유통업자들은 파이프 대부분을 수거하지도 않고 갯벌에 방치한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고 난, 큰이 불법적으로 힘들게 돈을 벌으면서 환경을 오염시켜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저지른 짓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짓을 없애게 정말 멋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나의 작은 실천!

나는 내가 죽어간 모뎀케를 그냥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모뎀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렸다. 계몽을 위한 행동



최유정 중학교 1학년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날씨 흐림

30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 !!

To. -30년 뒤 나에게

안녕? 난 30년 전의 너야. 난 지금 원화중학교에 있고, 바깥을 보니 날씨가 많이 흐려서 비가 오고 있어. 너가 살고있는 곳의 날씨는 어때? 그리고 나는. 환경일기장을 쓰게 되면서 환경을 위해 몇가지의 작은 실천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어. 나의 작은 실천이 하나 하나 모여서 30년 후의 내가 살고있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 지금 환경이 어때? 환경오염이 많이 되었을라나? 나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어짜피 모두 같이 걸어갈 미래인데... 이왕 각자 자신이 갈 길인데 지금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될텐데....

말려야 분진 이나간 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실천 해 볼게!! ☆☆☆ 30년 후의 나! 잘 지내고 있지? 환경문제는 없고? 그때까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이 재난이 되지 않길.. 큰 일이 되지 않길.. 심각하게 되지 않길.. 바라고 있을게!! 앞으로 더 큰 지구의 문제가 생기길 않길! 꼭! 바라며 이만 나는 가볼게!! 안녕 잘 있어! ♥♥♥

-2024. 7. 10 (수) - From. 2024년의 나



최유정 중학교 1학년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2024년 05월 21일




소년한국일보

여름철 한낮 폭염 발생하면 어린이 천식 환자가 늘어난다

미국 연구팀, 연관성 분석... "병원 방문할 확률 19% 증가"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서 폭염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한낮 폭염이 어린이가
천식 문제로 병원을 방문할 위험을 19%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의대 모건에
박사팀은 20일 미국 흉부학회가 샌디에이고에서
연 국제학회(ATS 2024)에서 2017~2020년
6~9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폭염과 어린이
천식 환자 병원 방문의 관계를 분석, 이런 연관성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낮 시간대에 폭염이 발생하
면 어린이 천식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확률이 폭
염이 없는 날에 비해 19% 증가했다. 또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을 1~3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 어린이 천식 환자의 병원
방문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밤 시간대 폭염과 어린이 천식 환자들
의 병원 방문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
견되지 않았다고.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날씨 흐림.

요약

여름철에 폭염이 발생하면 어린이들 중, 천식환자가 늘어난다. 연구팀에 따르면 낮 시간대에 폭염이 발생하면 어린이 천식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확률이 폭염이 없는 날에 비해 19% 증가 했다고한다. 그리고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 어린이 천식 환자의 병원 방문 확률이 두 배트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밤 시간대 폭염과 어린이 천식환자들의 병원 방문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느낀점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낮 시간대에 폭염이 발생하는 것과 어린이 천식환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난 원래 요즘 폭염, 들, 큰단절 기후 현상으로 전세계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린이 천식환자와 관련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한번 그것에 대해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고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다. 무엇이냐면, 낮 시간대에 폭염이 발생하는 것은 어린이 천식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확률이 폭염이 없는 날에 비해 19% 증가한다고 하는데, 밤 시간대 폭염과 어린이 천식환자들의 병원 방문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위 생각해 보아도 도데체 무슨 원리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의 폭염과 어린이 천식환자의 병원을 방문할 확률의 연관성이 다른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어쨌든 위에서 얘기한 상황 모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벌어진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극복하고 노력해서 늦추야 할 사태라고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는 소수의 사람들만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예방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한다.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이 환경오염 예방 활동이 전세계에서 의무가 된다면... 그러나 우리의 '지구'가 잠시 쉬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나의 머릿속에서 혼자 되새겨 보며 느낀점 작성을 마무리 하겠다.





최유정 중학교 1학년

2024 년 7월 17일 수요일 날씨 맑음

환경일보 ☆♡☆☆ ~ 매미꽃의 멸종 위험성... 2024년 07월 05일



▲ 우리나라 특산식물 매미꽃(Coreanomecon hylomeconoides) /사진제공=국립수목원

멸종 위험성 높아진 특산식물 '매미꽃'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따른 매미꽃 증분포 연구 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식물 매미꽃의 분포 변화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매미꽃의 멸종 위험성이 매우 높게 예측됐다고 밝혔다.

매미꽃(Coreanomecon hylomeconoides)은 우리나라 남부(전남, 경남)의 산지에 자라는 초본 식물로, 미선나무, 금강초롱꽃과 같은 특산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중요 요소이다.

증분포 모델링 결과, 매미꽃의 100년 후 분포의 변화지수(최저 -100, 최고 100)는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멸종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나리오 SSP1에서 -94, SSP3과 SSP5에서 -100으로 예측).

모든 시나리오에서 매미꽃의 분포는 현재보다 고해발 지역으로 이동했고, SSP1에서만 지리산 인근에서 분포가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특산식물은 생육환경의 폭이 좁기 때문에 기후·환경 변화에 취약한 생물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분포를 급격하게 소멸 또는 이동시키고 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1982년에 채집된 표본의 꽃과 올해 초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꽃을 비교해 매미꽃의 개화기가 지난 42년 동안 2주 정도 앞당겨진 것을 확인했다.

한편 매미꽃 증분포 모델링 연구 성과는 7월 3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9회 한국생물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2024 년 8 월 15 일 목요일

날씨 맑음

요약



→ '매미꽃'이라는 특산식물의 멸종위험성이 높아졌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식물 매미꽃의 분포 변화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매미꽃의 멸종 위험성이 매우 높게 예측되었다고 밝혔다.

매미꽃은 특산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의 중요 요소이다. 종분포 모델링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매미꽃의 분포는 현재보다 고해발 지역으로 이동했고, SSP1에서만 지리산 인근에서 분포가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특산식물은 생물다양성의 폭이 좁기 때문에 기후·환경 변화에 취약한 생물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분포를 급격하게 소멸 또는 이동시키고 있다.

느낀 점



→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매미꽃'이라는 식물이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이라는 것과, 이 특산식물의 분포가 기후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 특산식물은 생물다양성의 폭이 좁기 때문에 기후·환경 변화에 취약한 생물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분포를 급격하게 소멸 또는 이동시킨다고 한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니, '기후변화, 환경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나에게 와닿았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지구를 보호하는 행동, 활동을 하루하루마다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고 모이면 지구에 작지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며 노력할 것이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식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동물 등의 생물들이 피해를 많이 안보았으면 좋겠다.



장려상

최유정 중학교 1학년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날씨 맑음

환경일보 ☆☆☆!!!

2024년 07월 15일



▲ 창녕군 우포늪

/사진 = 창녕군, 하동철 사진작가

친환경

창녕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제36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최근 모로코 아가다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km²)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해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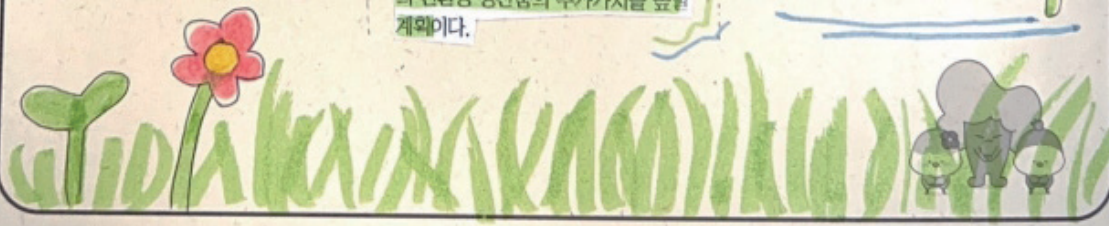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안도 등이 지정돼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국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관인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생물권보전지역

보전지역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날씨 맑음

요약

→ 제 36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창녕군 전역 (530.51 km²)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해 인구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느낀 점

→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기 전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난 후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역이 지정되면 다양한 동식물들이 보호받게 되고, 자연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했다. 특히, 창녕군 전역의 식물과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람들의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자연 보호와 지역 발전이 모두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앞으로 창녕군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호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